

“마약세계 통해 인간의 욕망·집착·파국 그려”

내일 개봉 영화 '마약왕' 송강호

마약에 취하고 고문으로 맞고 연기지만 외롭고 아팠다 촬영장에 가면 제일 선배 그만큼 이제 책임감도 커져



“생경하지만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오는 19일 개봉하는 영화 '마약왕' (우민호 감독)은 1970년대 필로폰 수출로 마약 세계 거물이 된 뒤 나라로 떨어지는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다.

마약을 소재로 한 범죄영화지만, 인간의 비틀어진 욕망과 집착이 어떻게 파국을 불러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극 중 마약왕 이두삼을 연기한 송강호(51·사진)를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났다. 깃에 털이 달린 가죽 재킷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한 송강호는 영화 속 이두삼 모습과 겹쳤다.

송강호는 “‘사회악’인 마약을 소재로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이 많이 됐다”면서 “이 영화는 마약 세계를 해부하기보다 이두삼이라는 인물을 통해 욕망과 집착, 파멸 등 한 인간의 굴곡진 인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이두삼은 하급 밀수업자였다가 우연히 마약 세계에 눈을 뜬 뒤 필로폰을 직접 제조해 일본으로 수출, 부와 명성을 거머쥔다. 불법으로 쌓아 올린 금자탑은 금방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인생의 정점에 선 순간 곧바로 나라로 떨어진다.

이두삼은 1970년대 실제 마약 사건에 연루된 여러 실존 인물을 하나로 합쳐 만든 가공인물이다. 자타공인 ‘연기신’인 송강호지만,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극 대부분을 그가 이끌어가는 데다 감정의 진폭 역시 매우 크기 때문이다.

“대척점에 있는 인물과 갈등을 유지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연기 밀도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적 고통, 비틀어진 집착 등이 뒤엉켜서 한 인간이 변해가는 모습을 밀도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죠.”

막판 20여분간 모노드라마처럼 마약에 취한 연기를 보여준 대목이나 천정에 거꾸로 매달려 고문을 받는 장면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연기도 많았다.

“이두삼의 외로움과 공포심이 극에 달하는 마약에 취한 모습은 실제 경험하지 못한 것이어서 많은 상상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실감 나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지점이었죠. 시나리오 속에서는 마약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이 지문으로만 표현돼 있었어요. 우민호 감독 역시 연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정말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

다. 고문 장면도 그렇게 적나라하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찍을 줄은 몰랐어요. 액션 배우들이 저를 실감 나게 때렸는데 정말 아팠습니다. 하하.”

1980년대 약명 높은 콜롬비아 마약왕 이야기를 그린 미국 드라마 ‘나르코스’처럼 외국에선 마약 소재 작품이 제법 많지만, 국내에선 일부 범죄 장편으로 활용될 뿐 흔한 소재는 아니다.

송강호는 “다른 외국 작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배우의 창의력은 갇힐 수밖에 없다”면서 “차별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마약왕’ 속 이두삼 자체에 집중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송강호는 ‘변호인’ ‘택시운전사’ 등 한 동안 정의감 넘치는 역할을 많이 해왔다. 욕망과 광기에 사로잡힌 범죄자 역할은 관객에게 낯설게 다가갈 수도 있다. 또 카타르시스보다는 여운을 남기고 끝내는 열린 결말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연합뉴스

송강호는 그러나 “상자를 여닫는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 새롭게 도발하는 영화 구조가 관객들에게 새롭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작품에는 조정석, 배우나, 조우진, 윤제문, 이성민, 김소진, 김대명 등 쟁쟁한 배우들이 조연으로 출연한다. 이두삼과 가족, 금전 등 이런저런 관계로 얽히며 그의 인생을 스치고 지나가는 캐릭터들이다. 영화 ‘괴물’에서 송강호와 남매로 나온 배우는 연인으로 등장한다.

송강호는 “촬영 현장에 가면 제가 제일 선배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이 크다”면서 “이 작품에 출연한 후배 모두 자기 배역에 맞는 적합한 연기를 보여줬고, 누구 하나 연기 구멍이 없었다”며 칭찬했다.

송강호는 ‘마약왕’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봉준호 감독 신작 ‘기생충’, 조철현 감독 ‘나랏말싸미’로 관객을 차례로 만난다. /연합뉴스

강호동, ‘가로채!널’서 박항서 감독 만난다

SBS TV 내년 1월 방송

참은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일어난 ‘박항서 매직’의 주인공, 박항서 감독이 SBS TV 예능 ‘가로채!널’에 만난다.

강호동은 최근 빅뱅 승리, 파이터 김동현, 가수 헨리, 배우 이시영 등과 성사된 대결에서 엄지발가락 잡고 멀리 가기, 휴지 투포환, 청테이프 컬링 등 특별한 종목으로 경쟁해 5연승을 달성했다. 과연 박 감독과의 대결 종목을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SBS는 ‘가로채!널’에서 1인 크리에이터로 변신한 개그맨 강호동이 ‘베트남의 영웅’ 박 감독과 만나기 위해 다음 주 베트남으로 출국한다고 17일 밝혔다.

박 감독의 ‘가로채!널’ 출연분은 내년 1월 방송 예정. /연합뉴스

‘스트레이트’ 해외계좌 관련 의혹 보도

MBC 최승호 사장·김의성·주진우 등 이명박에 피소

최승호 MBC 사장과 MBC TV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출연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피소됐다.

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방송했다.

‘스트레이트’ 진행자 중 한 명인 배우 김의성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소장을 공개했다.

거액의 달러 송금 시 은행은 수신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확인 전화가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작진은 추측했다. 그러면서 해외 은행에 리빙보가 만든 계좌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가 함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최승호 사장과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김의성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 최재진인 권희진 MBC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 보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소장에서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 보도와 VOD(주문형비디오) 삭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MBC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한 ‘리빙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문제 삼았다.

피소 소식에 MBC는 “곧 입장을 내놓겠”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대100’ 최종회, 역대 우승자 유민상·박지선 출연

오늘 11년 7개월 방송 종료

100명과 대결을 펼치며 상금 5000만원을 노린다. 특히 박지선은 ‘1대100’에서 유일하게 두 번 우승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8일 방송을 끝으로 11년 7개월간 대장정을 마치는 KBS 2TV 예능 ‘1대100’은 마지막 회 출연자로 역대 우승자인 개그맨 유민상과 박지선이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유민상과 박지선은 ‘최후의 1인 리턴즈’ 송.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탈레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40 지구촌 뉴스	50 특선만화 풍덩이영이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땀보걸즈(재)	50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충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5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25 프리파라 3 55 뽀뽀보 모두야 놀자	00 뉴스브리핑
3		00 자등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삼청동 외할머니(재)	15 차종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복수가 돌아왔다(재)
7	00 KBS 뉴스 7 35 2018 KBS광주 송년음악회 -이음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쏘리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볼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슬터	00 땀보걸즈	00 나쁜형사	00 복수가 돌아왔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특집 다크 2부작 생활체육 두 갈래의 길	10 불빨강 단신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작 다크멘터리(재)	30 스노포츠 하이라이트 55 사랑의 가족(재)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굴 김치국과 마 소고기조림〉	16:45 당동맹 유치원1~2 17:15 마사와 곰 17:30 띠띠뽀 띠띠뽀(재) 18:00 생방송 토티! 보니 하니1~5 19:00 미니특공대 X 19:30 EBS 뉴스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20:40 세계테마기행 〈발칸의 매혹에 빠지다 크로아티아 2부 아드리아해의 푸른 로망〉 21:30 한국기행 〈화산섬기행 2부 수월봉 어벤저스〉 21:50 특별기획 〈미래, 교육을 묻다〉 22:45 조식포함 아파트 23:55 엄마를 찾지마(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재) 〈여기가 천국 카리브 제도 2부 푸른 낙원 신비의 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3:00 다크 오늘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3:40 엄마를 찾지마 14: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아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방귀대장 뽀뽀(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띠띠뽀 띠띠뽀		
08:00 당동맹 유치원1~2		
08:30 고고다이나 공룡탐험대		
08:45 방귀대장 뽀뽀		
09:00 뽀뽀뽀 뽀로로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0:30 한국기행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8일(음 11월 12일 甲申)

子 36년생 무난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48년생 진정시키느라고 애를 먹을 수다. 60년생 흔들리지 말고 강한 집념으로 계속 밀어 붙여야 한다. 72년생 대동소이하니 조금도 신경 쓸 필요 없다. 84년생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92	午 42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54년생 가볍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66년생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이른다. 78년생 고통의 끝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90년생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95, 61
丑 37년생 전체적인 판국에 맞는 미래 지향적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49년생 강력한 장애 요인 앞에서 끈혹스러워 하는 위상이다. 61년생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 되리라. 73년생 조금씩 습통이 터지면서 자생력이 커진다. 85년생 과신은 금물이다. 행운의 숫자 : 35, 97	未 43년생 그 동안 힘써 왔던 바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다. 55년생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67년생 귀한 것이 생겨서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 79년생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 허점이 있다. 91년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62, 94
寅 38년생 중론에 좌우 되지 말고 소신껏 판단하자. 50년생 특별한 형태로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62년생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라. 74년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도를 조절하자. 86년생 뜨거운 상상의 기운이 샘솟으니 기대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61, 14	申 44년생 갈등에 사로잡히는 고뇌가 보인다. 56년생 기껏 배려해주고도 홀대 받을 수가 있다. 68년생 대어는 나 놓고 피라미에 집착하고 있는 성국이다. 80년생 조처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92년생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1, 99
卯 39년생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우회해서 비유함이 더 낫다. 51년생 진퇴가 분명해야 한다. 63년생 역할이 가장 되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75년생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87년생 수습부터 해야 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38, 02	酉 45년생 끝까지 절제된 언행을 한다면 시비를 피해 갈 수 있다. 57년생 예상이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69년생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하자. 81년생 대세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93년생 시세에 적응하다보면 혼란이 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7, 26
辰 40년생 변경한다면 차질이 불가피 하겠다. 52년생 분명 한 성과가 도출 되겠다. 64년생 근본적인 구조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날이다. 76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열고 기쁘게 맞이하라. 88년생 불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77, 80	戌 34년생 김사로 인해서 탄력이 붙겠다. 46년생 잠으로 의미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라. 58년생 부실한 판국이므로 잘 살펴보자. 70년생 가장 명료한 것을 선택하라. 82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2, 70
巳 41년생 접미한 이해관계로 인해 민감해지겠다. 53년생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리라. 65년생 마음뿐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77년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보인다. 89년생 국세가 마음과 같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자. 행운의 숫자 : 36, 12	亥 35년생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47년생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하리라. 59년생 큰 것만을 바라다가 작은 것마저 놓친다. 71년생 전려 의심의 여지가 없다. 83년생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22, 0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